

언어의 진실성에 대하여

-노자의 언어관을 중심으로

김상대*

I. 서언

사람은 언어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자국어를 구사한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자국어를 구사하는 데는 어떤 교육도 필요 없으며, 또한 어떤 교육으로도 도울 수 없다. 이 수준의 언어 수행이 동기면에서 가장 순수하고 형식면에서 가장 자연스러우며 내적 가치면에서 가장 진실할 듯하다. 언어학의 일차 대상은 이러한 언어를 생성하는 원리로서의 언어 능력이 될 것이다. 여기에는 비언어능력적 요소의 관여가 없거나 최소화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언어 수행의 초기 단계는 오래 가지 않는다. 조만간 아이들은 언어 생활에 지적 요소를 개입시키기 시작하면서 언어를 인위적으로 조작한다. 이때부터 언어 교육이 관여할 수 있으며, 지적 요소가 점점 더 개입할수록 언어 교육은 더욱 필요한 것이다. 언어 교육은 근본적으로 지식 등 비언어능력과 관계되는 것이며, 순수한 언어 능력은 가르칠 수 없고 저절로 성장하는 것이다.

* 아주대 국문과 교수

여기서 일찍부터 동양과 서양의 입장은 대조를 이룬다. 서양의 언어수행 전략은 지적 요소가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될 것을 요구하고, 동양의 그것은 지적 요소를 되도록 극복할 것을 희망한다. 그 결과 서양은 일찍부터 지적이고 논리적인 표현을 발전시키고, 동양은 예로부터 과묵과 침묵을 높이 평가했던 것이다. 또한 서양에서는 언어 자체의 형식적인 면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데 대해서 동양에서는 언어수행의 내면적 진실성을 중시하였다. 그러나 오늘의 우리는 서구화가 심화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서양의 방식을 추종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는 지식과 정보가 넘치고, 과학과 산업이 발달한 고도의 문명 사회에서 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양한 매체 언어¹⁾가 발달하면서 언어 생활은 질적 양적으로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으며, 이에 적응하기 위해서 높은 지적 수준의 이해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시대 추세에 보조를 맞추어 국어 교육도 꾸준히 발전해 오고 있으며, 현재도 우리는 복잡하고 다양한 언어 활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소양을 길러주기 위해서 부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 발전의 이면을 들여다 볼 때, 우리는 이를 위해서 못지 않게 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는 사실을 절감한다. 사회가 산업화되고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인성은 메말라가며 인간 관계는 대립 갈등 구조로 바뀌고 세상은 무질서와 혼란의 늪으로 빠져든다. 이러한 상황의 일환으로 혹은 그 반영으로 우리의 언어 생활 또한 터무니없는 사기와 과장으로 미화된 채 진실성을 찾아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²⁾ 이제 언어는 의사소통의 수단일 뿐 아니라, 진실을 숨기고 왜

1)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등 대중매체를 통해서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전하는 뉴스와 각종 정보 등에 쓰이는 언어를 말한다. (김대행, 1998 참조)

2) 이문열(1997)의 다음과 같은 표현은 이러한 현상을 잘 대변한다.
 “세상이 망하려면 먼저 말이 망한다고 한다. …… 지금 세상이 장차 망하려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번 청문회를 겪으면서 말이 얼마나 망했는지는 가늠이 간다. 사기와 횡령은 기업 정신으로 위장되고, 외압에의 굴종, 혹은 부패는 소신에 찬 결정으로 강변된다. 깃털은 몸통과 동의어가 되고,

곡하기 위한 방편으로 악용되고, 생존경쟁에서 자신을 방어하고 타인을 공략하기 위한 무기로 활용되고 있다. 이런 일그러진 언어 생활에 위기 의식을 느끼면서, 이렇게 심각한 언어 공해 현상에 무관심하고 이의 극복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는 국어 교육에 대하여 우리는 아쉬움과 함께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된다.

국어 학자나 국어 교육자의 고정관념으로 볼 때 국어학과 국어 교육이 이런 문제에 관여하지 않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로 생각할 만도 하다. 오히려 이런 현실적이고 주관적 혹은 내면적인 문제에 개입하는 것이 그 본령을 넘어서선 탈선으로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런 사고방식 또한 우리가 오랜 동안 젖어온 서구적 경향의 영향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어느 학문 어느 교육도 절실한 삶의 문제를 외면한 채 형식적인 지식 늘음에만 종사하는 것으로 그 책무를 다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언어 공해 문제는 국어학과 국어 교육의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 이 외에도 여러 유관 분야가 각기 상이한 방식으로 혹은 협동적으로 이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이것이 언어만의 문제는 아니나, 적어도 어느 분야 못지 않게 언어와 관련된 문제인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고 보면 언어학과 언어 교육이 오불관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지난 날 언어 공해가 아직 심각하게 문제되지 않았을 때는 국어학과 국어 교육에서 이를 소홀히 하거나 무시해도 별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우리 사회가 이처럼 언어 공해로 몸살을 앓고, 우리 모두가 직접 간접으로 그 가해자 혹은 피해자임을 경험하고 있는 처지에서 이는 더 이상 연기하거나 회피할 수 없는 당면한 과제로 다가온 것이다.

본고는 먼저 국어 교육에서부터 타성에서 벗어나 심각한 언어 공해 문제를 적극적으로 품에 안고 그 극복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의한다.

私怨에 찬 폭로는 목숨을 건 고발정신으로 둔갑한다. 그런데 걱정스러운 일은 말이 망해가는 곳이 정치판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일일이 다 예를 들 수 없을 만큼 경제에서도, 사회에서도, 문화에서도 말이 망해가고, 이는 이제 한 조짐이 아니라 공공연한 현상이 되었다. ……”

이제까지 주로 국어 자체에 관하여 지적 차원에서 접근해온 국어 교육이 이를 수용하기는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수용의 필요성 문제뿐 아니라 그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도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또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국어 교육이 마침내 언어 수행의 진실성 상실 문제를 중요한 과제로 받아들이고 그 극복 방안을 다루게 되는 날이 온다면 이는 국어 교육의 일대 혁신이 될 것이며, 새로운 지평에서 국어 교육의 보람은 배가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는 이런 문제의 바른 이해를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눈을 서구적인 것에서 동양적인 것으로 돌리는 일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본고는 동양적인 관점 중의 대표적 혹은 핵심적인 것의 하나로 이해되는 노자의 사상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려 한다.

II. 언어 지식과 언어 이해

이론적으로 볼 때 언어를 교육할 수 있고 교육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자연스러운 언어 수행의 단계를 넘어서 언어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일과 관련해서이다. 그간의 국어 교육도 국민 교육의 기본으로 표준어와 정서법을 발전 보급시키고, 국어의 정확하고 아름다운 표현 방식을 추구하는 등 국어를 문명어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크게 이바지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리하여 오늘날 국어는 문명어로서의 제조건을 갖추게 되고, 우리 국민은 문명어로서 언어 생활을 누리며 살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화려한 문명의 이면에 드리운 어두운 그늘에서 국어 교육의 한계를 절감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간 국어 교육이 이론 업적들은 모두가 언어의 형식적 측면에 속하는 것이며, 언어 수행에서 비언어능력으로 관여하는 언어 지식에 관한 것들이다. 우리는 이들이 국어 교육의 기본이 됨을 인정하면서도 특히 오늘날과 같이 언어 공해가 심하고 언어 수행의 내면적 진실성이 상실된 상황

에서 이것만으로는 국어 교육이 그 책무를 다했다고 생각할 수 없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쓰이는 말은 국어 교육에 힘 입어 형식적으로 상당히 정제되어 가고 있고, 그 위에 특히 매체 언어는 전문가들의 두뇌가 동원되어 형식의 원숙미를 과시할 정도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런 언어 표현들이 그 내용과는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고, 심한 경우는 내용과 무관하거나 상반된 경우도 적지 않음을 우리는 매일같이 경험한다. 현대의 언어 생활은 참으로 공허하고 위험한 상태에 이르렀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국어 교육은 새로운 도전을 받고 있다. 언어 표현은 형식미를 갖출수록 전달력이 풍부하고 호소력이 강하게 마련이다. 이런 표현이 내면의 진실성을 상실한 채 난무한다면 이는 유용한 도구가 아니라 무서운 흉기로 작용할 수도 있다. 게다가 사람들은 지적으로 뛰어날수록 그리고 언어 구사력이 능란할수록 언어를 무기로 휘두를 가능성이 큰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언어 구사력과 언어 수행의 진실성 간의 이러한 상관 관계를 생각할 때 우리는 국어 교육의 중요성과 함께 그 부작용에 대하여 새삼 돌아보게 된다.

언어 교육의 형식적 측면과 정신적 측면은 사실은 우리가 임의로 택일하거나 경중을 가릴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언어 형식은 그 내면적 진실성이 전제될 때 그 가치가 성립되는 것이며, 내면적 진실성은 형식을 통하여 실현되는 것이다. 그러나 굳이 선후 경중을 가려 보자면 내면적 진실성을 더욱 중시하는 것이 동양적 언어관의 입장이다. 언어 형식은 내면적 진실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나, 내면적 진실성은 굳이 언어 형식을 빌지 않더라도 다른 형식을 통하여 혹은 높은 단계에서는 침묵을 통하여서도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국어 교육이 형식면에 치중한 것은 정신면보다 우선하여 의도적으로 그것을 강조한 것이라기보다 지난 날의 사회적 정황이 진실성의 상실 정도가 심하지 않아 굳이 문제 삼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라 해석할 수 있다. 언어 수행의 진실성은 마치 공기나 물과 같이 자연적 혹은 본질적 요소이어서 정상적인 환경에서는 의식을 못하다

가 사태가 심각하게 악화될 때 비로소 그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지난 날의 국어 교육은 정신적 진실성 문제가 불거져 나오지 않을 정도의 그런 대로 좋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년이 다르게 인심이 메말라 가고 사회 분위기가 흥흥해지는 상황에서 국어 교육의 현주소를 바로 이해하는 일은 매우 긴요한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오늘날 언어가 쓰이는 상황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언어에 관한 지식(knowledge of language)이 아무리 많더라도 이것이 언어를 아는 데(knowing of language)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절실히 느낀다. 표준어로 말할 줄 알고 정서법에 맞게 쓸 줄 알며, 한자어와 외래어에 대한 이해가 깊으며, 나아가 논술문 작성 요령을 꿰뚫고 있는 것은 모두 국어에 관한 귀한 지식에 속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식은 혼란한 언어 생활의 와중에서, 말을 아끼며 진실되게 하고 혹은 말을 들을 때 통찰의 깊이를 더하게 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한다. 언어의 이해는 결코 지적인 것이 아니며, 사고의 부산물도 아닌 것이다. 공자는, 친구에게 말할 때 신용을 지킬 수 있게 하면 그가 비록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도 그가 배웠다고 할 것이라³⁾ 하고, 맹자는 말을 안다는 것은 사람들의 말을 잘 살핌으로써 그 의도를 꿰뚫고 그 말의 시비와 득실을 가릴 줄 아는 것이라 하였다.⁴⁾

한 걸음 나아가 언어의 이해는 언어와 관련한 지식뿐 아니라 일반

3) 與朋友交 言而有信 雖曰未學 吾必謂之學矣 (『논어』, 學而)

4) 맹자는 말을 아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 네 가지를 강조하였다. 편벽된 말을 대할 때 그 판단은 사적인 이해에 가리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음탕한 말을 접할 때 그 마음은 음침한 생각에 빠져 있음을 알 수 있고, 사특한 말을 들을 때 그 관심은 진실에서 멀리 벗어나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말이 도피적일 때 그 논리가 궁핍을 알 수 있다. (何謂知言 曰訛辭知其所蔽 淫辭知其所陷 邪辭知其所離 遁辭知其所窮) 이들은 혼탁한 사회에서 말이 진실하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동시에 이에 현혹되거나 동조하지 않는 자신의 냉철한 자세 내지는 능력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된다. (『孟子』, 公孫丑 上)

지식과도 무관한 것으로 본 성현들의 말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의 언어는 지식이 많고 권력과 재력이 있는 소위 지도층일수록 깊이 병들어 있고, 반대로 배우지 못하고 가진 것 없는 소시민 사회에서 그런대로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현상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말일수록 부패한 정도가 심한 현상은 우리를 더욱 당황하게 한다. 말을 듣는 데에도 지식은 도움이 되기보다는 장애가 되기 쉽다. 지식은 편견을 만들어 빗나가게 하기 때문이다. 일견 이는 모순처럼 들리나, 요즘 정계에서 여야 간에 시비하는 것을 보든지, 학자들의 토론 장면을 상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옛날에도 예수의 말을 제대로 이해한 것은 어부나 농부 목수 등 지식과는 무관한 사람들이었다. 위대한 스승들은 자연스러움에 대해 말하였을 뿐이나 학식이 풍부한 사람들은 자신을 규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그 말들을 기억하려 한다. 그러나 참으로 수용적인 사람은 그들이 말한 내용을 기억하지 못할지는 모르지만 그가 말한 바를 이해할 것이며, 그 말이 그의 지식에는 나타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그의 삶에는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진실한 언어를 이해하는 데는 특별히 어떠한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이는 아름다운 것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언어 생활이 이토록 타락한 것은 잡다한 지식이 넘쳐나고 사람들이 머리 속에서 이러한 지식을 남용하는 데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도 있을 듯하다. 이제 우리는 언어 사용 방식이 너무 형식 일변도로 기울어진 데 대해서 회의와 위기 의식을 느끼면서 선인들의 언어관에서 다른 일면의 아름다움과 슬기를 살펴 보고자 한다. 이들은 물론 비현실적으로 비칠 수도 있을 듯하나, 이 시대의 언어 공해에 대하여 반성하고 그 극복을 위한 조그만 암시라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Ⅲ. 노자의 언어관

노자의 언어관은 여러 각도에서 살펴 볼 수 있으나, 현대 사회에 뒤엎힌 문제를 조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관점에서 접근해 보려 한다.

1. 진리와 언어의 관계

노자가 언어에 대하여 특히 역점을 두어 말한 것 중의 하나는 언어의 진리와와의 관계이다. 그 자신은 늘 침묵 속에서 살며 그가 도달한 진리에 대해서 말하기를 꺼려했다. 제자들이 가르침을 남겨 줄 것을 간청했을 때에도 그는 항상 이렇게 말했다. “말로 표현되는 진리는 참다운 진리가 아니다.”⁵⁾ 어떤 진리에 대해서 말하면 그 진리는 말해지는 순간 거짓이 되며,⁶⁾ 언어를 통한 진리의 가르침이란 있을 수 없다고 그는 생각했다. 진리와 관련하여 그는 늘 말의 희생물이 되는 것을 경계하였던 것이다.

진리가 말로 표현될 수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 있을 듯하다. 첫째, 진리는 늘 정숙한 가운데 실현되는 내적 현상이다. 내면의 이야기마저도 멈추었을 때 그것은 실현된다. 정숙 중에 실현되는 것이 어떻게 음성을 통해서 전해질 수 있겠는가? 가령 붓다가 “나는 깨닫지 못했다.”고 말한다면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고 그가 “나는 깨달았다.”고 말한다면 깨달음 속에는 小我는 없는 까닭에 그런 말은 있을 수가 없다. 깨달음은 ‘나’라는 것이 사라질 때에만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정도의 진실도 말로는 표현될 수 없는 것이다. 하나의 생각이라면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말로 표현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진리는 생각이 아니라 체험이며

5) 道可道非常道 (『도덕경』, 제1장)

6) 비근한 일례로, 매우 겸손한 사람이 만일 ‘나는 겸손하다’고 말한다면 그 순간 그는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은 못되는 것과 같다.

실존이다. 이는 마음으로 이해할 수 없고 마음을 초월한 무심의 상태에서 도달된다. 마음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경지에서 일체의 언어는 소용이 없다. 그러므로 내면의 진실한 체험은 말로 나타내기 어렵다. 노자는 하느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러서는 하느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없다. 하느님을 마시고 호흡하며 살 뿐이다. 노자가 하느님을 산다는 것은 너무 전체적이고 또한 내밀한 현상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모독이 되고 배반이 되기 때문이다. 마치 연인들이 자기들만의 애정 생활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것과 비슷하다. 붓다도 40년간 참으로 많은 이야기를 했으나, 붓다를 정말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가 진리에 대해서는 결코 한 마디도 말하지 않았다고 이해한다. 왜냐하면 그가 이야기한 말들은 단순한 힌트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하나의 그물, 자신의 머리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한 어부의 그물에 지나지 않는다.

둘째, 진리는 절대적인 데 비해서 말은 상대적이기 때문이다. 언어에 의해서는 무엇을 말해 보아도 그것은 이원적인 것을 벗어날 수가 없다. 언어의 힘으로는 비이원적 리얼리티에 대하여 표현하는 것은 무리이다. 한두 예로 ‘쉽다, 조화롭다’ 등의 쓰임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가령 ‘그것은 쉽다’고 말하는 것은 모순을 드러낸다. 왜냐하면 쉽다고 하는 것은 그 속에 약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어려움의 일종에 들어간다. 어렵다거나 쉽다고 하는 것은 같은 질을 지니고 있다. 즉, 어느 정도 양적으로는 다르나 질적으로는 같은 것이다. 그리고 ‘진정한 조화’라는 것도 진정으로 조화롭다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조화란 거기 아직 갈등이 남아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조화롭다는 말은 곧 거기 대립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공존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진정한 조화란 그 대립하는 부분들이 모두 하나로 녹아 들어간 것을 의미한다. 그 때에는 그것을 조화롭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므로 진정한 조화란 조화가 아니라 단순한 통일일 뿐이다. 이러한 현상은 언어의 이원성과 진리의 일원성에서 야기되는 문제이다. 사실, 진리는 하나라고 말

하는 것조차 옳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란 것은 많은 것이 있다는 상황 하에서만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진리는 그토록 절대적인 하나이므로 동양에서는 그것을 하나라 부르지 않고 ‘不二’라고 부른다. 하나엔 둘, 셋, 넷이 전제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냥 ‘둘이 아니라’고 말한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말하지 않고 그것이 무엇이 아닌 것에 대해 말한다. 거기에는 다수가 없다. 그것이 전부다. 우리는 그것을 둘이 아닌 것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다. 그것은 그토록 하나이고 그토록 절대적이다.

이 외에도 노자적 관점에서 진리는 하나의 생명체이며, 그것은 너무 살아 있어서 언어로 규정하든지 어떠한 형식으로도 포착하면 손상을 입는다. 한 마리의 나비를 붙잡아서 핀으로 고정시키면 그 나비는 이미 생명체가 아닌 것과 같다. 진실은 이보다 훨씬 더 예민하게 살아 숨 쉰다. 가령 성경 속에 나오는 예수의 말은 그에게 있어서는 모두 생생하게 살아 있는 진실이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진리를 체험하지 못한다. 그 거룩한 문구 전부가 그들에게는 단지 죽은 말에 지나지 않는다. 만일 그들이 그것을 경험하면 그것은 살아 있는 진실로 되살아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단지 과거의 사건으로 믿는 데 그치면 생명을 잃은 한갓 얘기에 불과하다. 진실은 진행형의 경험이지 머리로 이해하고 믿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진실한 말일수록 오해받기 쉽다. 붓다, 예수, 노자 등 성인들은 한 번도 바로 이해되지 못하였다. 그들은 깊은 오해를 받았을 뿐이다. 그만큼 그들의 말은 진실하였고, 그리하여 손상되기 쉬웠다. 사람들은 신자가 되어 믿고 조직을 만들며 따르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놓쳐 버린다. 만일 한 번이라도 진리를 체험하면 다시는 세속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언어를 통하여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진리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말할 수가 없다. 고작 그것이 그러한 바의 것일 것이라고 변죽 정도만 울릴 수 있을 뿐이다. 노자도 사원이 아니라 사원의 문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데 불과하다. 만일 이것

을 이해한다면 그때 우리는 모든 말을 버리고 우리 실존의 깊숙한 곳에 있는 사원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세상에서 보면 반대로 진리에 도달하지 않은 사람들이 진리에 대하여 말하기를 좋아한다. 우리 주위에는 옳은 말과 필요한 글이 도처에 널려 있다. 교회와 사원에서는 구원의 말씀이 넘쳐 나고, 학교에서는 정의를 역설하는 책들이 쌓여 있으며, 거리에는 다양한 표어와 플래카드가 시의적절하게 나붙어 있다. 이들을 듣고 보며 의미를 이해하는 일은 모두 언어적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그리고 이들을 비롯한 모든 언어 표현의 바른 형식을 이해하고 그 의미를 지적으로 파악하게 하는 데 국어 교육의 목적이 있으며, 이것이 또한 그 한계이기도 하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고도로 발달한 지식과 뜨거운 교육열, 풍족한 경제적 여건 하에서 국어 교육의 이러한 목표에 접근하는 것은 어느 면에서 낙관적이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이런 지적 혹은 형식적 교육이 성공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것이 날로 극심해지는 언어 공해의 치유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언어의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우려되는 것은 진실성의 결여라 할 수 있다. 인성이 교활하고 거칠어지면서 말이 진실성과 품위를 잃어 가는 데 대해서 우리는 심각한 문제 의식도 없고 아무런 대책도 강구하지 않고 있는 것이 정말 문제이다.

여기서 우리는 형식적인 국어 교육 극복의 문제와 함께 언어 자체에만 편협하게 파고 들어감으로써 폭 넓은 시각을 잃어버리고 언어와 관련한 보다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외면하고 있는 서구 언어학의 한계에 관하여 비판적 입장을 취한다.

2. 지식과 언어의 관계

노자가 언어에 대하여 역점을 두어 말한 것 중의 또 하나는 언어의 지식과의 관계이다. 그는 자신의 삶에 충실하지 않고 지식의 추구에

노예가 되는 것을 경계하고 자연스러운 무지의 상태에 남아 있기를 원했다. 그에게는 행복할 만한 까닭을 구하지 않으면 누구나 전혀 까닭 없이 행복할 수 있는 것처럼, 본연의 무지 속에서 언어를 인위적으로 조작할 필요 없이 진실한 삶을 살려고 하였다. 그는 늘 지식의 희생물이 되는 것을 경계하였다.

노자에게 있어서 머리에 의한 언어의 구사 혹은 언어 이해는 표면적이고 천박한 것으로 이해되었다. 여기서 언어는 필요에 따라 조작될 수 있고 혹은 자신에 유리하도록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노자가 과묵과 궁극적으로는 침묵을 강조한 것도 이와 관련하여 이해될 수 있다.

노자는 무엇을 말할 경우에 머리로 말하지 않고 가슴으로부터 쏟아내었다. 그러므로 그의 말은 논리적이지 않고 차라리 시적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어느 경우에도 그것을 위해 계획하지 않고 단순히 내면의 필요에 따라 반응할 뿐이다.

노자의 관점으로는 지식인의 언어는 언제나 거짓이다. 그것은 논리적으로 들리지만 현혹시키는 수단일 뿐이다. 그들의 말은 무엇인가를 숨겨야 할 때 특히 유효하다. 거짓말을 할수록 더욱 많은 설명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마지막 설명으로도 아무 것도 설명될 수 없다. 그러나 진실은 어떤 설명도 필요치 않은 것이다.

지식을 통해서 언어를 깊이 이해할 수가 없다. 우리는 도처에서 필요하고 훌륭한 말을 보고 듣지만, 그것은 의식의 표면에서 반짝하고 타올랐다가 금새 꺼져 버린다. 그 순간 사람들은 이해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깊은 무의식 속에서 강풍이 일어나 이 작은 불꽃을 쉽게 꺼 버린다. 인간은 의식이 아니라 무의식에 의해 지배되기 때문에 표면적 지식은 결코 아무 것도 변화시키지 못한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허다한 문제가 가로 놓였으며 그에 대한 해법 또한 부지런히 제시되고 있다. 학교에서, 교회에서, TV에서 또는 많은 교양 서적이 우리 국민을 선도하려고 한다. 그러나 우리의 지성과 지식은 끊임없이 우리를 빗나가게 한다. 우리는 이들을 머리로만 해석하고 결코 가슴

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만일에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우리의 가슴 깊이 와 닿고 내면 깊이 파고든다면 반드시 참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이다. 언어의 진정한 이해는 결코 지식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없다. 이해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들을 때 일어난다. 마치 우리의 몸 전체 즉 마음, 영혼, 육체 모두가 커가 되어 물을 마시듯이 말을 들을 때 이해가 일어난다. 만약 머리와 귀로만 듣는다면 무엇을 듣고 있든 그것은 진정으로 듣는 것이 아니다. 듣고 있다고 해도 그것은 기껏 사전적 의미일 뿐 그것이 전하는 깊은 메시지는 줄곧 흘려 버린다.

노자가 머리의 언어를 배격하고 가슴의 언어를 옹호한 것은, 머리는 우리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으나 가슴은 우리가 그 지배를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노자는 가슴의 언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일체의 언어를 초월한 정적의 세계를 지향하였다. 우리도 그의 말만 듣고 그의 침묵을 듣지 못한다면 빗나가고 말 것이다. 그는 궁극적으로는 침묵을 전하기 위하여 말하고 있을 뿐이다.

산업사회를 맞고 다시 그 위에 무한경쟁 시대에 돌입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횡행하는 말들은 가히 타락의 극에 도달하였다고 할 만하다. 갈수록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적 삶을 추구하기에 여념이 없다. 그리하여 온갖 지식을 동원하여 말을 꾸미고 불리며 말장난을 서슴지 않는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는 가장 비현실적인 듯하면서도 가장 절실하게 그리고 가장 근원적으로 문제와 해결의 본질을 제시하는 노자의 언어관에 주목하게 된다.

IV. 도덕경의 음미

도덕경은 물질 문명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정신 문화가 극도로 침체한 현대 사회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자못 크다. 다만 그를 형식적으로 이해할 때 너무 불합리한 것처럼 보이고 세속적 눈으로는

큰 의미를 발견할 수 없는 것이 문제다. 노자는 우리를 납득시키려고 하지 않으며, 다만 진실을 말할 뿐이다. 그는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정원 같은 것이 아니고 자연 그대로의 삼림에 비유될 수 있다. 그에 대해서는 논리나 상식 같은 것이 잘 통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이러한 방식에서 오히려 신선함과 아름다움마저 느낄 수 있다.

우리가 노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바뀌어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그의 거친 듯하면서도 섬세한 발언 뒤에 깊이 숨어 있는 위대한 일관성을 꿰뚫어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노자의 사상 중에서 특히 언어 문제와 관련하여 살펴보려 한다. 노자는 언제나 그러하듯이 언어와 관련하여서도 근원적인 견해를 제시한다. 도덕경 81장 가운데서 다소간에 언어 문제와 직접 관련하여 언급한 부분이 20 여장에 걸쳐 있고, 그 이외에도 넓은 의미에서 혹은 깊은 성찰로 언어와 관련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여러 군데 있다. 본고에서는 지면의 제약으로 그 중 일부에 대하여 살펴 보려 한다.

1. 行不言之教(제2장)

말하지 않는 가르침을 행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말을 통해서만 가르치고 배우는 우리로서 이 의미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우리에게 이는 모순처럼 들리기까지 한다. 그러나 우리의 체험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지식은 말로써 전해질 수 있지만 교양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지도자들은 언제나 말로 사람을 가르치려 하나, 이를 통해서 실제로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에 반해서 자연은 결코 말하지 않으며 가르치려 하지 않으나, 배울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자연을 통해서 늘 배우고 있다. 그래서 자연은 말 없는 스승이라고 한다. 선생은 말이 많은 법이나 전하는 것은 삶과 무관한 지식뿐이다. 참된 스승은 되도록 말을 하지 않으려 한다. 선생이 말로써 지식을 전하는 것과는 달리 스승이 진리를 체험시킬 때에는 침묵 속에서만 가능하다. 말로 전해주는 것은 결코 본질적인 것이 못 된다.

말을 통해 배운 것이 아닌 그의 모든 경험은 또한 말 없는 가운데 전해진다. 참된 스승이 진리를 체험시킬 때는 오히려 침묵 없이는 불가능하다. 만약 그가 말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침묵을 만들어 내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진리는 침묵 속에서 직접 전달되는 것이며, 언어를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될 때 이는 이미 진리가 아니라 생명 없는 죽은 말이다.

스승이 말을 하다가 잠시 멈출 때 갑자기 거대한 침묵이 거기에 생겨난다. 그는 진리를 말한 것이 아니다. 진리는 말해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하나의 작은 틈을 만든 것이다. 말과 말 사이의 순간에 어떤 기적이 일어난다. 석가는 참으로 많은 말을 했다. 그러나 진리를 말한 것이 아니다. 그는 침묵의 작은 틈을 만들어 내기 위해 말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작은 틈이야말로 그의 진짜 설법이다. 진정한 제자는 스승이 하는 말에는 관심이 없다. 그는 스승의 존재에 관심이 있는 것이다.

뜻을 전달하는 데에 늘 말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가치 있는 것일수록 말은 더 필요 없게 된다. 그리고 메시지가 가장 본질적인 것일 때는 침묵만으로도 충분하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言不言’이란 표현에 대하여 한 마디 덧붙이는 것이 좋을 듯하다. 도덕경의 주석에는 이 표현이 여러 곳에서 쓰임을 본다. 앞의 ‘言’을 동사 그리고 ‘不言’을 목적어의 구문으로 이해하면 이는 말하지 않는 말을 한다는 뜻이 된다. 行不言之教가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이의 가르치는 방식에 대한 것이라면, 言不言은 언어를 구사하는 모든 사람의 말하는 자세에 관한 것이다. 우리는 말을 잘 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한다. 그리하여 실제로 말할 때는 준비한 말을 읽듯이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중요한 말일수록 더욱 치밀하게 준비하고 예행연습까지 한다. 이는 말을 준비한 대로 말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말이 더 정확하고 훌륭하게 들릴지는 몰라도 그 말은 결코 자연스러운 생화는 못 되며 생명 없이 모양만 좋은 조화와 같다. 이에 대하여 자연발생적으로 말할 때, 아무런 준비

없이 즉각적으로 말할 때, 우리는 말하지 않은 말을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말은 되었어도 말을 하려 한 사람 혹은 말을 한 사람은 없는 셈이다. 자발적인 언행에는 거짓과 꾸밈이 있을 수 없다. 이는 간사한 인간의 때가 묻어 있지 않다. 자발적인 행동은 인간에 속한 행동이 아니라 존재계가 그를 통해서 존재계 자체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실제로 우리는 말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고 형식미를 갖추기 위해서 다소간에 미리 생각하거나 준비하는 경우가 있으며, 또 이를 굳이 나쁘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사람들은 선의에서 말을 준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말만 듣기 좋게 꾸미고 진실성은 없는 말을 늘어놓음으로써 심한 언어 공해를 유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사람들이 言不言之하고, 지도자들이 行不言之教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국어 교육이 이바지할 수는 없을까 생각해 본다.

2. 唯之與阿相去幾何(제20장)

공손하게 ‘예’ 하고 대답하는 것과 불손하게 ‘응’ 하고 대답하는 것이 그 차이가 얼마나 되는가 하는 뜻이다. 이 뒤에는 對句로 ‘세상에서 선이니 악이니 하는 것의 차이는 또 얼마나 되는가’ 하는 말이 이어진다. 세상에는 표면적인 차이에 의하여 모든 것이 구분되고, 그 구분에 의하여 가치가 결정된다. 부자와 거지, 승자와 패자, 신자와 비신자 등의 구분처럼. 가진 것이 많고 적은 것이 부자와 거지의 표면적 기준이라면, 탐욕이 많고 적은 것이 그 본질적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만석꾼이 거지와 두 주먹만 가지고도 여유 있게 사는 부자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느 편이 진정한 부자이고 거지인지 다시 생각해 볼 만하다. 승자와 패자도 현실에서는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무조건 이기면 승자고, 양보하여 저 주더라도 패자가 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어른들은 아이들 싸움을 말할 때,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란 말을 흔히 한다. 이 표현을 쓰고 이

해하는 데는 특별한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신자와 비신자의 구분도 일견 명백한 듯하면서 실은 애매하기는 마찬가지다. 교적이 있거나 교회에 다니는 것이 신자의 표면적 조건일 듯하다. 그러나 내면적 가치의 측면에서 볼 때 우리는 솔직히 신자와 비신자의 삶에서 별 차이를 찾아 보기 힘들다. 유신론자와 무신론자의 대립적 주장인 ‘신은 존재한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명제도 언어상으로는 상반되나, 기실 그들이 신에 대하여 살고 있는 자세에는 아무런 구분도 없다. 사회에서는 언제나 작은 도둑만 도둑이고 큰 도둑은 도둑이 아니라는 식이고, 소위 지도자가 지도를 받아야 할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허다하다. 일일이 예거할 필요도 없이 말로 상반되는 것이 정말로 그렇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실체는 하나인데 우리는 두 개의 눈을 가지고 보기를 좋아한다. 우리는 한 쪽을 사랑이라고 부르고 다른 한 쪽을 미움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그 에너지는 똑 같다. 정말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미워할 수도 없고, 미워하는 것은 깊은 의식에서의 사랑의 다른 표현에 불과하다.

똑같은 논의도 극히 간단히 그 반대의 것으로 바뀔 수 있다. 모든 논리적 논의는 그 반대의 것으로 계속 바뀌어 왔다. 하느님에 관하여 증명하려고 하는 어떠한 것이든 하느님을 반증하는 것으로 바뀔 수 있다. 모든 논의는 그 자체에 대립하는 것으로 바뀔 수 있다. 논의라고 하는 것은 단지 게임에 불과하다. 논리라고 하는 것은 식자들이 가지고 노는 게임에 지나지 않는다. 유능한 변호사는 같은 사건에 대해서 어느 편을 위해서도 변론하고 또 이기게 할 수 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만 볼 때 혹은 너무 언어에 집착하여 생각할 때, 우리는 많은 사물을 대립적 관계로 구분하고 진실로 그런 것으로 확신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는 극복해야 할 형식 논리에 불과한 것으로 이해된다.

3. 希言自然(제23장)

이는 들을 수 없는 말이 제 본래 모습이며, 큰 소리로 떠드는 말은 곧 끝장이 난다는 뜻이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 정말로 혼동 없이 서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것은 언제나 언어적일 필요는 없다. 만일 그것이 언어적이라면 그것은 오해될 소지도 있고, 천박한 것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 때로는 두 사람이 침묵 속에 앉아 손을 맞잡고, 무엇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정숙 속에 만나 융합한다. 논의, 토론이라는 것은 머리와 머리 사이의 일이지만, 합일이라는 것은 실존과 실존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지식인들, 지도자들은 무엇인가 큰 소리로 말해야만 한다. 그들은 그들의 풍부한 지식을 증명하고, 혹은 야심적인 포부를 내세워야 한다. 그러나 슬기로운 사람은 큰 소리로 외칠 아무런 지식도 그리고 아무런 포부도 가지고 있지 않다. 자신의 삶에 충실하고 안으로 만족해하는 사람은 스스로의 존재에 충실하고 자기 자신만을 주시하므로 크게 외칠 필요도 없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너무도 심오하여 결코 말로 표현될 수 없다. 말로 표현될 수 있는 것들은 지극히 사소하고 일상적이며 깊이가 없다.

지금 우리 사회는 도처에서 떠들어 대는 말소리로 귀가 아플 지경이다. 능력 있는 사람일수록 큰 소리로 떠들고 큰 활자로 외치고 있다. 말로써 시비를 가리며 싸울 때, 큰 소리가 힘을 발휘하는 것으로 믿고 더욱 소리를 높이려 한다. 그러나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격언은 오늘날도 통하는 진리이다. 우리는 학생들에게 큰 소리로 썩썩하게 말하는 법만 가르치지 말고 그 허상과 폐단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어야 할 것이다.

4. 知者不言 言者不知(제56장)

도를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으며, 도를 말하는 사람은 알지 못한다

는 것도 우리의 상식과는 반대되는 말이다. 언어가 객관적인 것을 나타내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내면적인 것을 나타내는 데는 전혀 소용이 안 된다. 말이 내부의 경험을 전달할 수는 없다. 예수나 붓다가 어떤 말을 했을 때,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이들을 읽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 고작 사전에 실려 있는 의미를 알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사전은 우리가 살 수 있었던 순간의 체험을 표현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종교는 언어를 초월한다. 종교뿐만 아니라 모든 내면적 현상에 대해서 언어는 역량 부족이다. 가령 사랑에 대하여 여러 권의 책을 읽는다 해도 그것만으로는 결코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사랑이라는 것은 이해되어야 할 개념이 아니라, 그것에 의해서 지배되는 체험이기 때문이다. 즉, 사랑은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러므로 사랑은 사랑에 빠지는 것에 의해서만 알 수 있으며, 그 밖에 어떠한 설명에 의해서도 알 수 없다. 이를 설명한 말은 결코 진실이 아니다.

노자에 의하면, 만일 알고 있다면 그것을 이야기해서는 안 되며, 얘기한다면 그때는 잘 알지 못하는 셈이 된다. 그렇다면 노자 자신 큰 모순에 빠지게 된다. 만일 그가 알지 못한다면 어째서 이토록 엄청난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그가 의도하는 것은 말에 현혹되지 말고 아는 척 떠들어대는 사람에 대해서 조심하라는 것일 것이다. 오늘날도 자기 혼자만 진리를 아는 것처럼 외쳐 대는 사람이 우리 사회 도처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자의 이 구절은 다시금 음미해 볼 가치가 있는 말이 아닐 수 없다.

V. 결어

지금 우리 사회는 최근의 급속한 변화로 말미암아 각종 오염과 공해로 시달리고 있다. 그런 가운데 국어 생활 또한 심각한 병리 현상

을 보이고 있다. 이 글은 국어 생활의 여러 문제 중 특히 그 진실성의 상실 현상에 대하여 문제 의식을 가지고 동양적 관점에서 접근해 보려 하였다.

이는 종래 국어학이나 국어 교육에서는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배제되었던 것이다. 사물을 체계적으로 다루고 논리적으로 기술하는 학문의 특성으로는 언어에 관한 지식을 추구할 뿐, 아무리 중요하고 심각하더라도 언어 생활의 현실적인 문제는 다룰 입장이 아니었다. 이는 서구적인 학문 풍토의 영향이다. 그러나 동양적 관점에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언어에 관한 지식을 쌓는 것보다는 참으로 언어를 아는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적 상황은 언어 문제에 관한 접근에 있어서 서구적 관점 일반도에서 탈피하여 동서양의 관점이 조화롭게 융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동양 사상 중에서도 특히 노자의 입장은 서구적인 것과 대조를 이룬다. 서양에서는 어떻게 언어를 사용하여 의사를 소통하고 관계를 맺는가 하는 것이 문제인 데 대해서, 노자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언어를 초월하고 자신의 존재 내부로 들어가 침묵 속에서 관계를 떨쳐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였다. 다분히 서구화한 우리의 안목으로 노자를 이해하기는 지극히 어렵다. 그러나 서구적 지식의 숲에서 잠시 벗어나 동양적 지혜로 바라볼 때 노자의 사상은 현실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진단하고 처방하는 데 시사해 주는 바가 자못 큰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서는 노자의 언어 사상 가운데서 진리와 언어의 관계 및 지식과 언어의 관계를 중심으로 언급하였다. 이는 이들이 노자의 핵심 사상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언어의 진실성이 특히 문제가 되는 상황과 관련한 배려이기도 하다.

도덕경 내용의 음미는 여러 가지 제약으로 극히 일부분에 한하였다. 도덕경은 그 역설적 표현 방식 때문에 경전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 중의 하나로 간주되기도 한다. 여기서는 우리 문제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측면에서 관련되는 것을 선정, 되도록 용이하게 해설하여 국어 교육에 다소나마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시도가, 국어 교육이 그간 현실적 문제와 유리된 채 국어에 관한 지식을 전달하는 데만 급급했던 데서 벗어나는 데 한 조그만 계기라도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가 일찍이 없었던 형편에서 이 논의가 교육계와 학계에 공감을 불러일으키기보다 적잖이 오해를 살 소지를 배제할 수 없을 듯하여 매우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이나, 이미 위험 수위에 육박하고 있는 우리의 언어 현실이 이러한 만용을 강요한다고 하겠다.

《 참고문헌 》

- 김대행(1998), 「매체언어 교육론 서설」, 『국어교육』 97, 한국국어교육연구회.
김상대(1997), 「동양언어관의 특성」, 『국어교육』 95, 한국국어교육연구회.
김승동(1996), 『道敎思想辭典』, 부산대학교 출판부.
김종무(1989), 『論語新解』, 민음사.
김종무(1991), 『孟子新解』, 민음사.
김탄허(1986), 『懋吐譯註 道德經』 1·2, 도서출판 교림.
손인수(1987), 『한국인의 도와 미풍양속』, 문음사.
양동휘(1994), 『수정 문법론』, 한국문화사.
이강수(1989), 『도가사상의 연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이규호(1994), 『말의 힘(언어 철학)』, 제일출판사.
이기문(1997), 『국어의 현실과 이상』, 문학과지성사.
이문열(1997), 『망해가는 말』, 동아일보 동년 5월 1일자 동아시론.
정재관(1978), 「노자에 있어서의 언어관」, 『관악어문집』 3, 서울대 국문과.
조민환(1996), 『유학자들이 보는 노장철학』, 예문서림.
焦竑(중화민국 51년), 『老子翼』, 廣文書局.
함석헌(1980), 老子翼 본문 번역, 私製 프린트.
라즈니쉬, 정성호 역(1993), 『道(영원한 大河)』 1~5, 명문당.
러셀, 임병수 역(1983), 『의미와 진실의 탐구』, 삼성출판사.
베버, M., 이상률 역(1990), 『유교와 도교』, 문예출판사.
酒井忠夫, 최준식 역(1990), 『도교란 무엇인가』, 민족사.